

## 사회적경제로 살기 위한 교육

김 신 양 I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사회적경제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

2013년 8월 21일,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는 ‘최근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환경분석과 사회적경제 주체의 과제’라는 주제로 내부집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문보경집행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최근 동향과 과제인식’이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조직 및 제도적 현황을 개괄해주었다. 정부보조금 의존성, 지속가능성 희박, 행정기관에 의해 유도된 협의체가 만들어지니 잘 안 되는 연대, 정책의 도구화 등. 이것이 한국 사회적경제의 민낯이다. 그러나 발제자가 결국 던진 문제의식은 ‘어떻게 시민사회진영이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은 예전의 그것과 달랐다. 제도적 지원의 부족,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환경 등 밖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스스로 그 환경에 굴복했다는 자기패배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환경은 조건일 뿐 그것 자체가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로써 벌어진 상황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주체의 생각과 그에 따른 실천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사회적경제국제리뷰(RECMA)를 발간하는 드라프리(Draperi)교수를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남는다. “사회적경제를 할 때 ‘생각’과 ‘실천’의 오고감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라는 조직을 만들기 전 먼저 그것을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기에 실천 후에 단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를 보아야 한다.”<sup>4)</sup>

4) 2013년 6월,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학생들과 ‘사회적경제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프랑스 연수를 갔을 때 드라프리교수를 만나 프랑스 사회적경제의 기원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 소중

결국 무슨 뜻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자 했던가를 논한다는 것은 주체, 즉 사람(나)의 문제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고 한 많은 이들은 조직을 만들기에 급급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마을기업을 만들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협동조합을 만들며 사회적경제를 실천한다고 한다. 그렇게 앞 다투어 조직을 만들고 나서는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를 한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회적기업을 만든 이들은 어떻게 ‘사회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한다. 협동조합이 좋은 것이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조직을 운영하는 이들은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협동하는 삶을 사는 건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지원하는 조직들이나 관련 연구자나 학자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각종 교육이나 토론회 등 행사에 가면 준비된 다과는 일반대기업의 상품이다. 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이들 중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조합원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자치단체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담당공직자들 중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가 드물고, 그 조직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자신도 경험이 없으면서 누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

다른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철학, 가치,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이런 것이 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조직이고, 그 조직들간의 연대’인데,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철학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경제를 말하며 ‘조직’만 말했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주체는

한 시간을 가졌다.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것은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sup>5)</sup>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교육방식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동안 많은 지역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면서 노동부가 기본 기획을 하고 강사풀까지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리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처음에는 이론, 그 다음엔 마케팅기법, 사례 듣기, 행정 등. 간혹 현장 방문으로 구색 맞추기.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을 배워서 되는 것일까? 사회적 자원동원이란 주변의 자원을 재조직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처음부터 자원으로 존재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묻혀있는 것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 넣는 과정이다. 공장식 생산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마치 사회적기업인을 생산해내듯.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교육도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유명세를 타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에 의해 내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 그의 말로 내 생각을 대리하는 방식의 교육.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협동조합을 인가받았다고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인 운영, 연대, 그 모든 실천의 형식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이들과 평등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옆의 사람과 협동의 관계로 만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이용하고 함께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사회적경제를 실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장으로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인이 함께하는 ‘만남포럼’ 모임에서 평소 학습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하승우선생이 교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었다. “교육은 자기상식이 강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틀을 깨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5) 2013년 8월 21일에 개최된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월례세미나에서 노동연구원 황덕순박사님의 발언 인용.

## 다른교육의 시도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내재화가 되고, 지식이 지혜로워 지려면 체험이 있어야 한다." 평소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의 말씀이다. 체험이란 그냥 보고 듣고 조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그냥 느끼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선 것이다. 그 삶을 통째로 살아볼 순 없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만나며 내 안에 생기는 반응이 자각과 깨달음을 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교육을 시도해보았다. 주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를 자각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으로 내 삶을 비추어볼 수 있는 교육,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 인상 쓰는 교육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의 장, 그것을 하는 '다른경제학습 동아리'로 이름붙이고 제안하였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던진 나의 제안에 응답하고 함께 모험을 시도해보자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작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매회 4시간씩, 총 6회에 걸친 대장정을 함께, 그것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서. 각자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 온 사람들이 모였다.

한신대동아리는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의 장을 만드시는 분, 세계를 다니며 여행하고 책을 내는 분,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일반기업에서의 일을 관두고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후배가 만났다. 월요일, 세종마을 푸르메센터에 있는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시작한 모임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 현장에서 돈 잘 벌다가 다른교육을 찾으시는 분, 재테크와 주식만을 주로 다루는 경제부 기자일에 회의를 느껴 다른 경제를 찾는 기자, 이렇게 다섯이 모였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상근자들 6명이 함께 조직의 사업으로 이 교육을 배치하여 평일 근무시간에 실시하였다. 조직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이들은 따로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그들은 노동조합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면서 활동하는 학생이거나, 과거에 사회활동을 하다가 살림을 하면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일하는 등 다 다르다. 모두가 다르지만 같은

열망으로 모였다. 그 모두는 그 다름으로 인해 한사람 한사람이 빛나고 소중하다. 달라서 맞추기 힘든 것이 아니라 다름에도 같이 모인 그 이유가 더 소중하니까.

##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사람들

5개월의 대장정이 끝난다. 우리 다른경제학습동아리는 1월 초, 한 해의 자기계획을 나누고 서로 덕담을 해주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분은 그동안 일하는 곳에서 사회의 아픔을 많이 보기에 일상에서는 사회문제에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다 한다. 그래서 일부러 신문이나 뉴스 등을 피했는데 이제 밖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국사를 가르치다 오랫동안 사교육시장에 계셨던 분은 매주 3회 천안의 한 중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무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그건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이들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공교육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실천이기도 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딸이 남부국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반가웠고, 서울집을 청산하고 지역에 내려가신다고 하셨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계신 분은 올해는 남을 위해 살겠다고 하신다. 또 다른 분은 쉬기 위해 라오스를 여행하면서 늘 마음이 불편했다고 한다. 관광객으로 쉬고 싶었으나 그들의 어려운 삶이 눈에 보이니 개발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쉬지도 못하고 공부한 것도 아닌 그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자 한다. 그 무엇이 꼭 일이나 직업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나의 삶은 나만 보며, 나만을 위해 삶으로써 내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내 주변을 살피고, 남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찾으며, 그렇게 공동의 삶을 지어가면서 내가 되어가는 것이리라.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보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고민을 더 자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걸 편히 할 수 있는 문화가 되고, 그 삶을 지탱해주는 관계망이 확장되기를 바란다. 다른경제학습동아리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곳이 되길 소망한다.

## 새로운 교육운동

남강 이승훈선생이 중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한 것은 교육입국운동으로 식민지를 벗어나고자 했던 도산 안창호선생을 만났기 때문이다. “일본의 강압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자결하고 하는 것은 낡은 군대로 적을 막으려는 것밖에 안 된다.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새 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새 군대가 신식학교일 것이다. 서도에 중학교 하나를 세우는 일은 적의 침공을 꺾는 강력한 연대 하나를 새로 조직하는 일이 된다”(김기석의 ‘남강 이승훈’, p. 110). 도산 안창호선생은 일제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총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지배를 벗어나야겠다는 자각이 있어야 하고, 그 자각은 교육을 통해 일어난다고 믿었다. 그의 생각에 감명을 받은 이승훈선생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웠다. 그것이 그 유명한 오산학교이다. 많은 이들이 마이크로크레딧의 기원인 그라민뱅크(Grameen Bank)를 만든 사람이 방글라데시의 유누스(Yunus)교수인 것을 알고, 가장 유명한 사회적기업가로 빌 드레이튼(Bill Drayton)을 예로 든다. 그러면서도 민족의 위기의 시대에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고 공부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되찾을 사람을 양성한 이승훈은 모른다. 시인 백석과 김소월, 사상가 함석헌과 유영모를 배출한 그 학교를 세운 한국의 사회적기업가이자 사회적경제를 실천한 남강이승훈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의 정신을 일깨운 안창호의 교육입국운동을 말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 사회적경제를 구축하려면 우리 역사부터 제대로 알고, 그 역사를 만든 이들의 사상과 실천을 알고 교육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경제학교육방식이 아닌 새로운 교육운동을 시작하며 실천할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를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사람이 사회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남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그 나가 되어가는 과정은 홀로가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참다운 만남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 만남의 장이 학습의 장, 실천의 장이 어우러진 교육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간절히 바란다.